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지역 무질서 및 안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 무질서의 매개효과

강 현* · 김 현 호**

〈요 약〉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안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 무질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7년 수도권지역에 거주자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임의표집법(Random Sample)을 통하여 3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최종분석에는 24부를 제외한 총 276부를 통계처리 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CPTED’는 ‘무질서’와 ‘안전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나, ‘지자체 안전교육’은 ‘안전생활 만족도’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무질서’는 ‘안전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CPTED’와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만 지역무질서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지역사회의 안전교육에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CPTED 지역주민의 안전생활을 위한 안전망으로써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효과가 선행적으로 입증되어 아만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안전망과 무질서 및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사회안전망, CPTED, 지자체 안전교육, 지역 무질서, 안전생활 만족도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호보안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포츠머스대학교 형사사법학 박사 (교신저자)

| 목 차 |
|--|
| I. 서 론 II.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

I. 서 론

최근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들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로 정의 되고 있다 (홍성태, 2006). 산업화를 경험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삶의 안전의 위험도 높아지면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하였다. 이러한 위험사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범죄는 나날이 흉악해지고 지능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더욱 급속하게 위험사회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재난과 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주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대형 사고는 끈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김찬선 외, 2014). 따라서 안전을 위한 안전망 형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나 범죄 피해로부터의 안전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오늘날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 정책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사업을 보급하고 운영하기에 앞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헌법, 제3조),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의 안전함을 추구도록 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은 효과가 선행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안전망의 기초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안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무질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사회안전망(Local Governments Social Security Network)

사회안전망은 실업, 빈곤, 재해, 노령과 질병 등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함성규, 2013). 이를 위해서 사회는 4대 보험(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등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이승운 외, 2017). 이러한 사회 안전망은 경제, 복지적 측면에서만 한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위험사회로 불리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사회안전망의 포괄적인 이해와 구체적 대안이 요구되는 맥락이라고 사료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해당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삶을 해할 우려가 있기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헌법 제35조에서 얘기하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국가는 주민의 범죄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보급되고 운영되기에 앞서 안전망으로써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래 내용참조).

1)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 및 무질서의 관계

김영희(2016)의 연구에서 “재난 안전관련 교육을 교육학적 측면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업무역량(지식, 기술, 능력의 총합)을 신장하기 위한 유기적인 종합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지역의 범죄위험 취약지역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낙관적 편견을 감소시키고 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시민문화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 무질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신상태 외, 2015).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 주체(경찰, 기업, 주민 등)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범죄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이것의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심명섭, 2017). 첫째,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둘째,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셋째, 영역성(territoriality) 넷째, 활동의 지원(activity support) 다섯째,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를 함으로써 범죄자의 범행의 동기를 억제시켜 범죄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갖는다(Crowe, 2000).

이처럼 ‘지자체 안전교육’과 ‘CPTED’는 지자체 안전망의 기초적인 부분으로써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지역의 무질서함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CPTED’는 지역사회 무질서를 개선시키는 것을 고려한 범죄예방디자인이며, 안전교육은 시민의식을 높혀 지역사회 무질서개선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안전망이 지역의 무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2)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 및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은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며 사회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다(송병호, 2013). 이와 같이 형성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은 지역사회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김찬선, 2014).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사회에 들어선 최근 현대인들의 높아진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의 광범위한 환경의 관계성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안승남, 2015). 김영남(2015)의 연구에서도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사회전반에 걸쳐진 시민의 불안감이 지속될 시 주민 사이에 불안감마저 고조시켜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고 개인의 삶의 질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았을 때, 현대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 요구인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Maslow, 1943), 이러한 안전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사회의 광범위한 관계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인의 삶의 질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종합했을 때 그 삶의 질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Ulrich Beck(1997)이 제시한 위험사회에서는 Maslow(1943)와 Kenrick(2010)이 주장한 안전욕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홍성태, 2006). 즉, 위험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안전생활 만족도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안전생활 만족도는 김찬선(2014)이 제시한 사회안전망(치안서비스, 민간경비 서비스, 지자체 안전교육, 지역자율방범활동, CCTV 설치)이 안전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볼 수 있는 지자체의 안전교육과 물리적 변화를 통한 안전망인 CPTED가 지역주민의 안전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차이가 있는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3. 지역 무질서

1) 지역 무질서와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

현대인들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확대되면서 안전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안승남, 2015).

특히, 지역사회의 무질서함은 주민의 안전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범죄는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기에 지역사회의 무질서함의 개선은 안전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사회의 무질서는 자신의 주위환경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다. 주위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무질서하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생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지역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조은경(2003), 고준호(2009), 염보아(2015), 황의갑(2015), 임창호(2016) 등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무질서요인은 범죄두려움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안전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승남(2015)의 연구에서도 범죄두려움이 안전한 생활만족도를 위한 개념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사회 무질서를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까지 위험사회에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험사회라 불리는 사회속의 현대인의 삶의 질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안전생활 만족도는 현대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Maslow, 1943, Kenrick, 2010), 충족이 되어야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위환경이 무질서할 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함과 동시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켜 지역주민의 안전생활 만족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선행 연구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있지만, 무질서와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4. 안전생활 만족도

현대사회는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안전욕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범죄연구들이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삶의 질과 연결시켜 스스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장윤식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강력범죄와 공포·불안요인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정도에 대한 만족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다.

실제로 광범위한 환경은 지역주민의 안전으로부터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삶의 질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할 때,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인식을 경험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표가 필요하며, OECD(BLI: Better Life Index), UN(HDI: Human Develop Index)를 활용한다. 즉, 현대인의 삶의 질은 협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다양한 만족감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위험사회로 접어들면서 안전의 보장이 현대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은기(2014)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실시한 결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사회로 접어든 시대에 삶의 질을 위한 안전생활 만족도를 향상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위하여 사회안전망이 지역의 무질서와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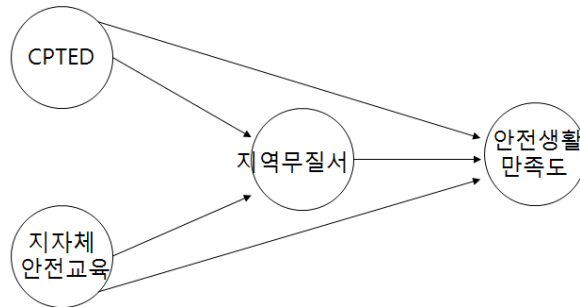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안전망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무질서 및 안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독립변인에 지자체의 안전망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을 두었으며, 매개변인에 지역 무질서를 두었다. 종속변인에는 안전생활 만족도를 두었다.

2) 연구의 가설

- 위의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은 지역 무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은 안전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지역 무질서는 안전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지역무질서는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 및 안전생활 만족도에 매개할 것이다.

2. 조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7년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수도권지역에서 임의표집법(Random Sample)을 이용하여 3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설문참여자에게는 충분히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24부를 제외하여 분석엔 총 276부를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안전망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지역 무질서 및 안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지자체 안전교육 6문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8문항, 지역사회 무질서 6문항, 안전생활 만족도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측정문항은 Lickert 7점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1)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찬선(2014)의 연구에서 지자체 안전망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되고 사용된 측정도구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2) 지역 무질서

사회통합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Lewis&saalem(1986), Taylor & Hale(1986), Convington & Taylor(1991)가 활용한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장안식(2011)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3) 안전생활 만족도

본 연구의 안전생활 만족도 측정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종길(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안승남(2015)의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하고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접합하도록 수정하여 안전생활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

설문조사를 하기에 앞서 측정문항의 예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전공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회의를 통하여 예비타당도의 절차를 거쳤으며, 측정문항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내적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이후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에 대한 구성타당도와 내적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 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다.

결과로는 아래의 <표 1>와 같이, 고유값이 factor1 3.76119, factor2 3.26898로 모두 1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1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factor2 '지자체의 안전교육'으로 명명하였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의 측정 문항에 요인적재는 0.7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Cronbach's α 값도 0.927으로 0.7의 α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도 모두 0.7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Cronbach's α 값도 0.919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문항 간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내적일치도도 있다고 판단된다. KMO값도 0.861로 나타났고 누적 설명량도 78.11%를 보여 표집크기도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참조).

<표 1>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의 탐색적 요인분석

| 우리지역은 ~ | 문항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지자체 안전교육 | cronbach's α | total cronbach's α |
|---------|-------------------------|---------------|--------------|---------------------|---------------------------|
| |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을 잘 정비하고 있다. | 0.877 | 0.254 | | |
| | 집집마다 방범창을 설치하고 있다. | 0.856 | 0.170 | | |
| | 가로등은 매우 밝아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 | 0.846 | 0.200 | .921 | |
| | 어두운 공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 | 0.837 | 0.252 | | |
| | 불량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곳을 없앤다. | 0.820 | 0.145 | | .905 |
| |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 0.190 | 0.903 | | |
| |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노력한다. | 0.223 | 0.896 | .919 | |
| | 간담회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0.219 | 0.857 | | |
| | 지역의 관공서는 방범공청회를 장려한다. | 0.194 | 0.836 | | |
| | Eigen-valuable | 3.76119 | 3.26898 | KMO:0.861 | |
| | variance(%) | 41.79 | 36.32 | Chi2:2037.604 | |
| | Cumulative(%) | 41.79 | 78.11 | df:36 P-value:0.000 | |

2) 지역 무질서의 타당도 및 신뢰도

지역 무질서의 하위변인 간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다. 결과로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유값이 factor1은 3.68832로 1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1을 '지역무질서'로 명명하였다. 지역무질서의 측정문항에 요인 적재값은 0.7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Cronbach's α 값도 0.872으로 0.7의 α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문항 간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내적일치도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KMO값이 0.849로 나타나면서 표집크기도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61.47%의 누적설명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지역무질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 문항 | 지역무질서 | cronbach's α |
|------------------------|---------|---------------------|
| 우리지역은~ | | |
| 불량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많다. | 0.8312 | 0.872 |
|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 | 0.8283 | |
| 무질서하다. | 0.7746 | |
|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 0.7602 | |
|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 0.7535 | |
| 버려진 빈집이나 빈터가 많다. | 0.7522 | |
| Eigen-valuable | 3.68832 | KMO:0.849 |
| variance(%) | 61.47 | Chi2:817.144 |
| Cumulative(%) | 61.47 | df:15 P-value:0.000 |

3) 안전생활 만족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안전생활 만족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다. 결과로는 아래의 <표 3>와 같이, 고유값이 3.92121으로 1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actor1을 '안전생활 만족도'로 명명하였다. 모든 요인적재값도 0.8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Cronbach's α 값도 0.931로 0.7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문항 간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내적일치도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KMO값이 0.898로 나타나면서 표집크기도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78.42%의 누적설명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안전생활 만족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 나는 ~ | 문항 | 삶의 질 | cronbach's a |
|------|-------------------------------|---------|---------------------|
| | 안전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 0.910 | |
| | 외부침입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입을 일이 없다. | 0.894 | |
| | 대체로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가 적은 편이다. | 0.890 | 0.931 |
| | 현재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 | 0.876 | |
| | 앞으로도 현재의 안전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 0.857 | |
| | Eigen-valuable | 3.92121 | KMO:0.898 |
| | variance(%) | 78.42 | Chi2:1085.154 |
| | Cumulative(%) | 78.42 | df:10 P-value:0.000 |

4. 자료처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24부를 제외하고 총 276부를 자료처리에 활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tata 14.0ver을 통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타당도와 신뢰도분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Structure Equation Model)을 활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지표로 다른 지표들과 함께 판단하였으며, 또한, χ^2 값은 사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TLI, CFI, RMSEA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기준으로는 TLI, CFI는 .9 이상, RMSEA는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기에(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매개효과와 유의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다.

IV. 연구결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안전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안전망 사업이 시행되기에 앞서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안전망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지역무질서 및 안전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살펴본 결과로는 아래와 같다(표4, 5, 6, 7참조).

1.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1)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지역무질서에 미치는 영향

아래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자체 안전교육(β :0.056)은 지역무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β :-0.535***)은 지역무질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식의 설명력도 26.24%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분산팽창요인(mean variance inflation factor: mean VIF)의 값도 1.26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4>참조).

<표 4>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지역무질서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B | std. Err | t | β |
|------------------|----------|-------------|-------|-------------------------|
| 상수 | 5.227*** | .249 | 21.00 | |
| 지자체 안전교육 | .057 | .059 | .96 | .056 |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 -.517*** | .056 | -9.18 | -.535 |
| $R^2=.26,24$ | | Radj.=25.70 | | $F=48,56^{***}$ $n=276$ |

* $p<.05$, ** $p<.01$, *** $p<.001$

2)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안전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래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자체 안전교육(β :0.168**)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β :0.339***)은 안전생활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식의 설명력도 19.46%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분산팽창요인(mean variance inflation factor: mean VIF)의 값도 1.26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다고 볼 수 있다(<표 5>참조).

〈표 5〉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안전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B | std. Err | t | β |
|------------------|----------|-------------|-------|-----------------|
| 상수 | 2.831*** | .254 | 11.14 | |
| 지자체 안전교육 | .166** | .060 | 2.75 | .168 |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 .320*** | .057 | 5.57 | .339 |
| $R^2=19.46$ | | Radj.=18.87 | | $F=32.98^{***}$ |

* $p<.05$, ** $p<.01$, *** $p<.001$

3) 지역무질서가 안전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래의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 무질서(β :-.460***)는 안전생활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식의 설명력도 21.15%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참조).

〈표 6〉 지역무질서가 안전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B | std. Err | t | β |
|-------------|----------|-------------|-------|-----------------|
| 상수 | 6.248*** | .182 | 34.30 | |
| 지역 무질서 | -.449*** | .052 | -8.57 | -.460 |
| $R^2=21.15$ | | Radj.=20.86 | | $F=73.50^{***}$ |

* $p<.05$, ** $p<.01$, *** $p<.001$

2. 추가분석을 위한 경로분석

추가분석을 위하여 구조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적합한 기준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모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구조모형은 RMSEA(.083), CFI(0.923), TLI(0.902)로 나타나면서 앞서 제시한 적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자체 안전교육은 지역무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은 지역무질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생활 만족도에는 지자체 안전교육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무질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개별적으로 살펴본 가설검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7>참조).

<표 7>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가설검증 결과

| 가설 | 경로 | 경로계수 | 표준오차 | Z | 채택여부 |
|----|--------------------------|----------|------|-------|------|
| H1 | 지자체 안전교육 → 지역 무질서 | .045 | .072 | 0.63 | 채택 |
|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지역 무질서 | -.611*** | .065 | -9.35 | |
| H2 | 지자체 안전교육 → 안전생활 만족도 | .128* | .063 | 2.05 | 채택 |
|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안전생활 만족도 | .196* | .083 | 2.37 | |
| H3 | 지역무질서 → 안전생활 만족도 | -.488*** | .068 | -7.15 | 채택 |

TLI:0.902, CFI:0.923, RMSEA:0.083

Bootstrapping기법을 사용하여 지역무질서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지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생활 만족도의 간접효과는 -.024(Z=-.60)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과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에는 간접효과가 .324(Z=4.26***)로 나타났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과 안전생활 만족도에 지역무질서는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무질서와 안전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으나, 지자체 안전교육은 안전생활 만족도에 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무질서는 안전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

한 결과에서도 CPTED와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만 지역무질서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지자체 안전망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CPTED는 지역무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타나는 반면, 지자체 안전교육은 지역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CPTED 지역주민의 안전생활을 위한 안전망으로써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심명섭, 2017; 김영남, 2014), 주일엽·조광래(2009)의 연구와 같이 CPTED 및 시큐리티 시스템 간의 연개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즉, CPTED는 지역 사회 무질서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반면, 지자체 안전교육은 지역의 무질서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안전교육에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지자체 안전교육은 지역주민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무질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무질서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신상태 외,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내용이 안전교육에 결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여 지역의 무질서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를 갖추도록 시민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이 안전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지자체 안전망의 기본적인 수단으로써 살펴본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은 지역주민의 안전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2016)의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을 교육학적 측면에서 안전활동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의 안전생활을 위한 역량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PTED라는 기계경비와 시설경비 등과 같은 민간경비 전략을 사회안전망에 접목시킴으로써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김찬선(2010)의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위협사회라 불리는 현대사회에서는 안전망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전략을 통하여 현대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다는 연구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CPTED가 지자체의 안전교육보다 안전생활 만족에 높은 영향력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형태

를 띄고 있는 교육보다 물리적 변화가 지역주민의 안전생활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안전교육은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신상태 외, 2016). 그러나 아직까지 물리적 변화에 비해서는 큰 영향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자체 안전교육 전문가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낙관적 편견을 버리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위험상황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다방면의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 보다 높은 안전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변화의 필요성도 보여준다.

셋째, 지역의 무질서는 안전생활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무질서를 개선하는데 지자체의 노력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의 부족, 장비의 노후화, 환경적 특성, 제정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면, 지역의 무질서를 위한 노력을 적극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장안식(2011)의 연구에서는 무질서하지 않고, 함께할 이웃이 존재한다면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역사회 무질서 개선은 지역주민간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이웃을 형성하도록 한다. 무질서를 개선하여 사회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함께할 이웃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삶의 질을 위해서는 안전생활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것은 선행조건이다. 지역주민의 안전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노력에는 아직까지 교육보다 물리적 변화가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안전망의 안전교육에 대한 변화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부분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위험에 대한 대처와 지역사회 변화에 적극참여 하도록 하는 역량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반영되어야 한다. 안전교육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만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계경비설계와 시설경비설계 등과 같은 민간경비 시스템으로도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향후 민간경비와 관련된 연구도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그 당위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안전망이 지역 무질서 및 안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거주 지역을 확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 안전망을 지자체 안전교육과 CPTED를 두었으나, 그 외에도 실시되는 안전망이 존재하기에 향후의 연구에서는 안전망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폐쇄적 설문지법을 활용하였기에 대상자에 대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참여자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점을 갖고 있기에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안전망으로써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자체 안전교육과 물리적 안전망인 CPTED가 지역무질서와 안전생활 만족도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했다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준호 (2009). 범죄와 두려움 공간의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남, 김찬선 (2015). 지역사회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관계.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2, 7-36.
- 김영희 (2016). 재난안전 전문교육의 효과성 연구 : 민간 전문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김찬선 (2014). 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주민의 안전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108-118.
- 김찬선, 김병호 (2014).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구축전략. 한국사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3(1), 5-25.
- 송병호 (2013). 사회안전망 구축이 경제성장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3(단일호), 127-149.
- 신상태, 김찬선 (2015). 사회안전망구축과 시민문화 및 지역사회결속의 관계. 융합보안논문지, 15(3), 59-70.
- 심명섭 (2017). 지역사회 CPTED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66, 37-63.
- 안승남 (201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안전망과 서울시민의 범죄두려움 및 삶의 질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염보아 (2015). 개인적 특성 및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인식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CCTV설치 인식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661-677.
- 윤은기 (201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한 삶의 질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46(2), 395-419.
- 이승윤, 박고은, 김은지 (2017).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1), 495-529.
- 임창호 (2016). 지역사회 무질서, 범죄두려움, 사회적 유대감 및 CCTV 효과성 인식의 관계. 한국공헌행정학회보, 25(3), 219-250.
- 장안식 (2011).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맥락적 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주일엽, 조광래 (200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과 시큐리티 시스템 간 연계방안. *한국경호 경비학회지*, 19, 165-185.
- 함성규 (2013).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 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 황의갑 (2015). 지역사회의 거시환경, 무질서, 범죄피해, 사회통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집합효율성의 매개효과. *한국경찰연구*, 14(1), 271-294.
- 홍성태 (2006).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2. 국외문헌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Kenrick, D. T., Griskevicius, V., Neuberg, S. L., & Schaller, M. (2010). Renovating the pyramid of needs: Contemporary extensions built upon ancient founda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 292-314.
- Crowe, T. D. (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Butterworth-Heineman

【Abstract】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Security Network on Safety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 of regional disorder –

Kang, hyeon · Kim, hyun-ho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afety net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safety life'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anarchy on the indicators. To do this, 300 people were sampled using the random sample method in the metropolitan area using the population of resi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2017, and a total of 276 copies were extracted except 24 copies in the final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ootstrapping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or effect. In summary, 'CPTED' has a positive effect on 'disorder' and 'safety life satisfaction', but 'municipal safety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safety life satisfaction' respectively. 'Local disorder' has a negative effect on 'safety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the same effect was found. In order to examine mediating effect, bootstrapping showed that regional disorder was mediated only in 'CPTED' and 'safety lif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change in the safety education of the community and it supports the precedent study that it is an effective means of safety net for the safety life of the CPTED community in the community. It is one of the nation's most important policies to prepare measures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ensure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safety net and the disorder and safety life satisfaction was investigated.

Keywords: Local Government's Social Security Network, CPTED, Local government safety education, Regional disorder, Safety life satisfaction